

〈토지〉에 재현된 ‘동학’의 서술전략과 지리적 상상력*

문 재 원**

차 례

- | | |
|--------------------------------|-------------------------|
| 1. 들어가면서 | 4. 동학의 장소, 지리산의 공간적 위상 |
| 2. 세대의 차이와 재현의 방식: 소문, 토론, 후일담 | 변모 |
| 3. 주체화의 계기성으로서 동학 | 5. 구심과 원심의 이중주, 동학의 변이들 |
| | 6. 나가면서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동학이 〈토지〉의 서사를 추동시켜 나가는 주요한 서사적 사건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주목하여, 동학에 대한 서술전략과 이를 통해 변형되는 동학의 공간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작품 내에서 동학의 생멸(生滅)을 큰 축으로 동학이 민중들에게 재현되는 방식을 ‘소문과 상상’, ‘토론과 담화’, ‘후일담’의 세 양상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머슴, 곰보 목수, 화전민, 백정 등 가장 최하층계급에 속해 있었던 이들이 세상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으로 나와 말하기 시작하는 데는 동학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화의 계기로 동학(운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작품 안에서 동학군의 거점이 지리산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존의 지리산에 표상된 저항의 이미지에 동학당이 모여들으로써 저항과 위반의 이미지는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저항과 위반은 동학당 해체 이후 근원적인 생명사상을 적극 포괄한다. 넷째, 동학의 ‘싸움’ 전략이 김개주-김환의 세대를 지나면서 구심력에서 원심력이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은 ‘이 땅의 변혁’을 열망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공통된 기반에 있으며, 이는 <토지>의 주제의 식이자 작가의식과 연결된다.

주제어 : 동학, 소문, 토론, 주체화, 지리산, 구심력과 원심력

1. 들어가면서

<토지>¹⁾를 읽어내는 독법은 방대한 규모에 비례한다.²⁾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장 중심적인 서사축은 최참판댁, 특히 작품의 2부 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하는 인물 최서희를 중심에 배치한다. 그래서 쉽게 ‘최참판댁의 흥망성쇠’라는 정형화된 독법에 익숙해진다. 이러한 독법 아래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600여명의 무수한 인물들은 사산(死産)되기 일쑤다. 대하소설 <토지>는 구한말~8.15 해방에 이르는 시간과 식민지 조선을

1) 본 논문에서는 박경리, <토지>1-21, 나남, 2005(14쇄)를 텍스트로 한다. 인용은 권수와 페이지만 표기한다.

2) <토지>에 대한 연구는 가족사, 한, 생명사상, 여성주의, 탈식민주의 등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지연구의 통시적 고찰에 대해서는 박상민, 「박경리 토지 연구의 통시적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3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271-319쪽 참조.

넘어 일본, 중국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공간 안에서 어떤 특정 인물만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는다. 작가가 <토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최서희의 로맨스도 아니고, 최서희의 복수극도 아니다. 구한 말에서 해방까지 역사의 격변기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학'을 중심으로 <토지>를 읽어내고자 한다. 대하소설 <토지>가 '땅'을 기반으로 하는 민초들의 이야기라는 점에 방점을 둔다면, 특히 동학이 내재하고 있는 인내천사상이나 갑오년 동학혁명과 연결된다. 다시말해, 소설 <토지>가 지향하는 땅의 서사는 “천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 세워야겠다는 염원”(21: 349)의 동학사상³⁾과도 궁극적 맥이 닿아 있다. 소설 도입부에서 제시한 '갑오년 정월'의 '동학 교도들의 분노'(1권)가 해방과 계급타파 사상의 합성이 가득한 지리산 동학당(6권)으로 이어지고, 이후 동학과 연계된 생명사상(21권)으로 나아가는 점을 볼 때, 이 소설에서 동학은 단지 사상사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동학이 단순한 배경이 아닌 <토지>의 서사를 추동시켜 나가는 주요한 서사적 사건으로 개입되어 주목하여, 동학에 대한 서술전략과 이를 통해 변형되는 동학의 공간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작품 안에서 동학은 4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다양한 인물, 사건들과 만

3) 동학사상은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다. 이를 테면, 자기일원사상, 천인합일 사상, 시천주 사상, 수심정기 사상, 인시천 사상, 평등사상, 후천개벽 사상, 지상천국 사상 등이다. 어쨌든 이러한 사상을 관통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 '사람이 곧 하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있어 자신의 존재론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최제우의 시천주(侍天主)사상에 근거한다.(문동규, 『지리산권 동학농민혁명과 동학의 '시천주』, 동학학보 32, 2014, 83-84쪽) 이를 다시 현대적 개념으로 유형화하면, 첫째 민족주의적 성격, 둘째 평등주의를 중심으로 한 농민 민주주의적 성격, 셋째 인시천을 중심으로 한 휴머니즘적 성격으로 주제화할 수 있다.(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56-76쪽 참조)

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작품 초반에서 윤씨부인의 은밀한 비밀(동학 장수 김개주의 겁탈로 인한 출산)과 연루되어 있고, (1부) 2부에서는 소문으로 등장하던 동학당이 실체를 드러낸다. 김환을 중심으로, 김개주와 함께 했던 운봉을 비롯하여, 백정, 판수, 화전민, 스님까지 합세한 ‘동학당’이 등장한다.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는 동학서사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위에서 필연성을 드러낸다. 특히 이 동학당은 과거 ‘갑오년의 싸움’의 이미지와 중첩시키면서 항일의 전선을 확장해 나간다. (3부) 이러한 싸움은 김환의 죽음으로 서서히 세가 약해지나 (4부) 한편으로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면 학병, 징용, 이데올로기 등 여러 이유로 지리산에 올라온 청년들과 합세하면서 새로운 싸움을 전개해 나간다. (5부) 이처럼 작품 전반에 배태되어 있는 동학은 단지 배경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사건, 장소 등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현실변혁에 대한 열망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작품 안에서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동학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작가의 서술태도는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사실로서 동학이 작품 안에 어떻게 정확하게 묘사(模寫)되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적 사건으로 동학이 작품 내에 어떻게 배치되었으며, 그 배치의 전략과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토지>의 동학이 민중, 민족, 저항의식과 연결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⁴⁾ 본 논문에서는 선

4) 동학과 연결하여 고찰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승옥,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동학의 의미』, 『승실어문』 15, 승실어문학회, 1999; 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동학-소멸하지 않는 민족 에너지의 복원』, 『문학과 종교』 14, 한국문화과종교학회, 2009; 우수영, 『박경리 <토지>를 통해 고찰한 ‘동학’의 의미』, 『동학학보』 26, 동학학회, 2012.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 동학을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니라, 민중의 힘을 결집시키고 나라의 주체성을 회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나아가 민중의 한을 새로운 생명력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또한 한점들은 <토지>를 관류하고 있는 사상으로 동학의 평등사상에 주목하고, <토지> 안에서 ‘한’을 공유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생명평등사상에

행연구의 주제의식을 수용하면서, 작품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재현되는지 고찰하여 서사적 전략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학에 대한 작가의 재현방식이나 인물의 주체성 형성에 동학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동학의 운동적 원리가 세대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과 공간성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2. 세대의 차이와 재현의 방식: 소문, 토론, 후일담

<토지>의 동학서사는 김환이 재건한 '동학당'⁵⁾에 대한 서사가 중심 플롯이다. 김환의 동학당을 기준으로 <토지>의 동학은 전/후로 나뉘다고 볼 수 있다. 동학장수 김개주의 아들인 김환이 사람들을 규합하여 동학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이야기가 동학당의 중심 사건이 된다면(2~3부), 그 이전은 김개주와 갑오년 동학전쟁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4, 5부에서는 김환의 죽음 이후 동학당의 해산과 이후의 변이가 주된 플롯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각 시기의 동학에 대한 서술전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동학 1세대 김개주의 동학이 소문과 상상으로 현재의 공간에 개입하고 있다면, 지리산을 근거지로 하는 김환의 동학당은 당사자들의 토론담화로 동학의 현장을 연결한다. 그리고 김환 사

연결시키고 있다.(한점돌, 『박경리 <토지>의 문학사상 연구- <토지>와 동학사상의 관련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5) 작품 안에서 동학에 대한 호명은 '동학', '동학란', '동학농민전쟁', '동학당', '동학군', '동학패', '동학놈' 등 문맥에 따라 여럿이다. 크게 구분해서 본다면 조준구 등 서울 양반들은 동학패, 동학놈으로 명명하고, 동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인물들은 동학, 동학군, 동학당으로 명명한다. 후반에 가면 '혁명'이라는 호명도 동반된다. 또한 양반 중에서도 항일운동을 하고 있는 이동진 같은 인물은 동학군, 동학당이라는 호명을 통해 동학에 대한 긍정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작품 바깥의 상징체계에 따라 '동학란'이라는 호명이 무의식적으로 쓰여진 부분도 보인다. 이러한 명명으로 동학에 대한 인물들의 입장을 알 수 있으며, 작가의 태도도 엿볼 수 있다.

후에는 동학당에 대한 후일담이 구성된다.

먼저, <토지>에서 동학의 기점은 ‘갑오년 동학란’이라는 과거의 기억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기억은 ‘... 카더라’의 전언으로 전달, 확장된다. <토지> 1부에서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최참판댁 윤씨부인과 목수 윤보를 둘러싼 동학관련 소문은 평사리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유통되며, 그들의 일상에 개입하기 시작한다.⁶⁾

동학당 했다는 막연한 소문 이외 윤보의 행적을 소상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다. (1: 138)

작품 안에서 윤보의 행적 중 분명한 것은 ‘동학당’이라고 방점이 찍힌다. 동학에 참여한 윤보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윤보는 언제나 소문에 의해서 동학당의 행적과 함께 등장한다. 윤보와 동학을 둘러싼 소문 안에서 유사한 이야기는 흡수하고 상이한 이야기는 배척되면서 그 영향력이 배가된다. 동학 소문과 만난 윤보는 ‘백두산 도사에게 비법을 배운 사람’이라는 남다른 비범함까지 더해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한편, 윤씨부인과 관련된 동학소문 역시 갑오년 동학에서 출발한다. 당시 “동학군이 평사리를 휩쓸고 지나면서 수많은 동학의 무리가 최참판댁에 들이닥친” 사건이 발생한다. 동학의 무리들이 양반댁을 덮쳤다는 사건은 어느 양반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어서 시간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힐 일이었지만, 최참판댁과 동학당은 안팎으로 잊히지 않고 회자되었다. 왜냐하면 ‘선혈이 낭자했던’ 다른 양반가의 풍경과는 달리 모두 조용히 철수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씨부인과 동학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만들어지고, 이듬해 윤보가 마을로 돌아오면서 윤보가

6) 평사리 사람들 중 동학에 연루된 사람은 윤보와 윤씨부인 이외에 또출네가 있다. ‘아들놈이 동학당에서 이름깨나 날린 놈이었는데, 갑오년 포살’되는 바람에 충격으로 미쳐버린 것으로 전달된다.

동학당이었다는 소문이 겹쳐진다. 윤씨부인과 윤보의 관계에 대한 소문까지 생산되고 윤보-동학당-윤씨부인의 인접한 관계들이 증폭되었다. 소문 속의 동학의 실체는 점점 멀어져가고, 발신자와 수용자가 은밀하게 공모하면서 허구는 실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공동체를 결속시킨다.

“무슨 까닭인지 최참판댁 윤씨부인은 동학당에 대해서 딱 동정적이라는 말이 있었다. 동학군을 도와주었다는 소문도 얼핏 지나갔고...” (1: 138)

이러한 양상은 지리산에 숨어있는 동학군에 대한 소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지주 최참판의 몰락, 전염병, 흉년으로 가뜩이나 피폐해진 평사리 소작인들 앞에 왜병은 극도의 ‘공포’를 몰고 온다. 마을 사람들은 왜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막아줄 대상으로 지리산 동학군을 설정하며 심리적 위안을 찾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화적때’, ‘역적’으로 명명하는 조준구일당들과 달리 평사리 민중들에게 갑오년 동학 혹은 동학당은 새로운 희망, 구원자라는 점이다. 지리산 골짜기에 숨어있는 동학군에 대한 소문은 점점 확산되면서 ‘천 명’이라는 수치까지 동원하며 꽤 구체적인 정보까지 대동한다. 그리고 여기에 축지법을 써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한다는 영웅적인 장수 김개주에 대한 기억까지 환기된다. “여차 하든 치고 나올” 동학군에 대해 한껏 기대에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산 골짜기에 쥐도 새도 모르는 군사가 천명은 넘기 숨어 있어서 여차 하든 치고나올 기리니 대단한 일이제”

“야 나도 그 얘기를 들었소. 천 명 넘기 숨어 있다는 군사가 모두 동학군 하든 사람들이라요. 그때 동학군이 수십만이었으니 천 명 모으기란, 잘난 장수 한 사람 있으믄 어려운 일은 아닐기요.” (6: 209)

소문은 이데올로기적 포섭의 도구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그물망에

쉽게 포획되지 않는 해방적 측면 또한 지니고 있다. 소문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익명적 대중의 힘이 표출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인에 의해 추동된다는 점에서 혁명적 힘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⁷⁾ 즉 변화하는 시대가 지닌 역동적인 힘을 매우 빠르게 감지하는 동시에 불안을 해결하는 한 방식으로서 시대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부각되는 새로운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작품 안에서 동학의 상징인 김개주의 죽음은 동학의 참담한 패배를, 나아가 민초들의 패배를 분명하게 드러내었지만, 갑오년 동학란의 소문이 평사리의 일상공간에서 긍정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동학에 대한 열망, ‘달라지는 세상’(6: 331)에 대한 욕망이 강렬하게 도사리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편, 소문 속에서만 등장하던 동학이 구체적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김환이 ‘새끼 동학당’ 이후이다. 그는 우선, 지리산 여기저기에 은거하고 있던 동학 잔당들을 규합하고, 바깥의 사람들을 모은다. 지리산에 은거하고 있는 동학 1세대 운봉 양재곤을 위시하여 솟굽는 사내 강쇠, 윤도집, 조막손 뿐만 아니라, 객주집 석포, 백정 사위 관수, 석이, 지삼만, 혜관스님까지 가세를 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모임의 운영방식이다. 동학당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을 명령하달식의 수직적인 방법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토론의 방법을 선택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는 어렵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한 곳에 모였소. 이같은 모임은 처음 있는 일이오. (...) 어쨌든 그동안 우리들이 일을 하면서 의견이 구구했고 불만도 있었던 게 실정이오. 그리고 좋은 중론을 모아서 좋은 방안을 채택한 일도 없고, 해서 몇 가지 방안

7) 한스 J. 노이바우어, 박동자 황승환 역,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219-221쪽.

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한편 기탄없는 가부의 토론을 바라오” (6: 375~376)

“이같은 모임은 처음 있는 일이오” 라는 운봉의 말에서 이전 동학 내부의 운영체계를 짐작할 수 있고, 동학당의 운영체계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김환, 혜관, 운도집, 석포 등을 제외하고 이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학식있고 조리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가 언문 정도를 깨쳤고, 실상 느낌이 있어도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6: 383)이다. 그런 점에서 이 토론의 장은 ‘언어가 되지 못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경청의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루한, 때로는 공격적인 토론의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의 방식으로 드러내며, 다음의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학당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지경으로 나갔다가는 장차 화적당으로밖엔’
‘우리가 화적당이 아니고 뱃이다요’
‘의병이나 동학이나 갈라놓고 생각하는 것도 지는 마땅찮아요. 화적당이면 어떻소’
‘그러크럼 한마디로 통박 잘라서 말해 치워버릴 양이면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더라고?’
‘그만했으면 많이들 얘기한 것 같소’ (6: 380~381)

이러한 토론의 과정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한 자리에 여러 계파, 신분, 세대가 모여 토론에 ‘육탄전’까지 벌여가며 합의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토론을 통해 도달되는 합의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의견의 일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합의는 각각의 욕구가 다르고 투쟁적일 수 있는 참여자들의 행위가 그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지는 실천적인 것이다.⁸⁾

김환이 죽기 전까지 중요한 전략 등을 위해 이러한 산상토론과 모의는 반복된다. 여러 계층,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인지라, 이들은 많은 갈등과 대립을 동반하였다. 그래서 매번 산상토론을 통해 한바탕 육탄전을 겪고 난 뒤 실천적 행보가 결정되는 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환과 윤도집은 “싸움이나 교세의 확장이나”의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한다.

얼마든지 그물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요. 한사람이 두 사람으로, 두 사람이 네 사람으로, 네 사람이 여덟 사람으로... 일본을 덮쳐 씌울 그물 말씀이오 (10: 328)

상대는 오백년에 이르러 쇠할 대로 쇠해버린 조선왕조가 아닙니다. 그네들 말을 빌리자면 옥일승천(旭日昇天)하는 새로운 세력의 일본이오. (...) 강한 힘과의 싸움에는 그들에게 우발의 불꽃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오 (10: 329)

동학당이 만들어질 즈음, 동학 조직은 이미 친일, 동학교, 의병 등등으로 각기 나뉘어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윤도집은 여전히 ‘동학란’을 ‘혁명의 원형’으로 파악하고 이에 뿌리를 두고 동학당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표면화해서 세력을 확장하자는 주장을 하고, 김환은 그때와 현재의 주적이 바뀌었음을 강조하며 동학당의 세(勢)를 냉정하게 판단한다. 조직을 확대하고, 전면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윤도집이 기대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있으며, 김환의 경우 “우발의 불꽃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여러 쪼가리가 나 있는 동학”(10:329) 현실이지만, 동학을 ‘현실적 강령’으로 삼고 ‘항일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동학당의 전략전술이 김환의 의견으로 수립되었음을 보여준다.

8) 이현아, 『우리는 토론을 통해 이성적 상호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한국정치학보』 41(4), 2007, 83쪽.

윤도집과 김환이 영도하는 동학 골수파들은 왕시 의병의 그늘 밑에서 활약하던 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표면에는 나타나질 않고 말하자면 열이 오를 데까지 올라갈 때 그 군중심리를 교묘히 조종하여 폭동으로 이끌어갔던 것이다. (9: 111)

동학당은 김환의 죽음 이후 와해된다. 이미 그 전부터 여러 쪼가리 나 있는 형국으로 그 세가 약해진 상황이었다. 경성에서 세를 확장하고 있는 손병희 등에 대해서는 전언으로 전달되고, 지리산 모임에서는 경성 쪽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동학'을 천명한다. 그러나 윤도집-지삼만은 교세의 확장을 주장하고, 결국 지삼만은 '청일교'의 교주가 되어 남원에서 축재를 하다 비참한 말로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김환은 지삼만 일당의 밀고로 일경에 잡히고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동학에 가담했던 목수 윤보, 윤도집, 김환, 지삼만, 석포 등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면서 지리산 동학당은 해체의 수순을 밟는다.

모인 이들이 동학의 잔당이라고는 하나 역시 활동의 무대는 산속이 아니었고 농촌도 아니었다. 또 그러했기 때문에 의병이 소탕되듯 그들은 소탕되지 않았으며 명맥을 이어왔는지 모른다. (18: 95)

해체 이후 강쇠나 송관수 등 김환과 아주 친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이 여전히 지리산을 오르내리면서 김환이나 동학당에 대한 회한을 쏟아내고 또한 동학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김환 사후 지리산에 들어온 해도사, 소지감에 의해 다음 세대(이범호)에게 동학사상은 전달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의 동학에 대한 작가의 서술전략은 세대에 따라 다른데, 동학의 출발점인 갑오년 동학은 소문으로, 재건한 지리산 동학은 토론과 싸움의 현장으로, 김환 사후 동학당은 해체의 과정을 후일담의 형식이라는 서술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 주체화의 계기성으로서 동학

김환의 조직은 의병의 성격을 띤 것도 아니요 화적떼는 물론 아니다.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화전민이요 솟 굽는 사람이요 사냥꾼일 뿐이다. (10: 208)

<토지>의 동학이 관심을 갖는 것은 동학 경전도 동학교의 포교도 아니고, “본시부터 씬으로 시작된” “갑오년 동학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⁹⁾ 갑오년 동학때 효시당한 장수 김개주가 여전히 이후 김환을 중심으로 재건된 동학당에 무의식적 심급으로 존재하면서 반복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은 경전보다도 실천에 무게를 둔 갑오년 동학농민전쟁과 연결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미다. 동학의 시발인 최제우나 혹은 이후의 종교로서의 동학이 적극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후반부에서 동학의 포교나 혹은 ‘지삼만’으로 형상화된 동학교주(교도)에 대한 부정적 서사는 이러한 점을 더욱 반증한다.

<토지>의 동학서사가 갑오년 동학장수 김개주와 그의 아들 김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서사의 폭을 넓히고 있는 주변 인물로 목수 윤보, 백정의 사위 송관수, 화전민 김강쇠, 객주집 석포 등이 배치되어 있다. 떠돌이 목수, 백정, 화전민 등의 신분에서 이들의 공통점은

9) 1894년 갑오동학농민운동은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연계된 사회개혁과 외세의 침략배격이라는 조선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농민들의 일대 항쟁으로 볼 수 있다.(권인호, 『동학사상과 갑오농민전쟁의 근대적 자주성』, 『한국민족문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60쪽) 이를 주도한 전봉준이 1895년 3월 사형당하고, 농민운동을 주도한 남접의 세가 해체되어가면서 운동적 성격은 와해되어 갔다. <토지>의 서사가 ‘1897년 한가위’의 시간에서 출발하면서도 ‘갑오년 동학란’에서 동학서사의 출발을 삼고 있는 것은 종교나 사상 등의 의미보다 민중운동, 민중염원 등에 그 의미를 부여하려는 작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지리산 동학당의 재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1대 교주 최제우 사후, 2, 3대로 이어지면서 경전이나 운동이나, 포교활동이나 등등의 논란들이 진행되고 한편에서는 천도교로 바뀐 근대종교체제(3대 손병희)로 전환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던 때였다.

‘제대로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제도권 밖의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목소리는 말이 되지 못하고 들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말이 되기 시작하는 계기에 동학이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름 없는, 말할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무수한 민초들의 한과 염원을 드러내고 말하게 하는 ‘동학’의 과정은 분명 이전의 질서와는 다른 감각적 질서를 요구한다.¹⁰⁾

‘이름없는 민초들이 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어진 자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정치적 주체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질서에서 자신들을 규정하던 정체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 내는 탈정체화의 과정이다.¹¹⁾ 다시 말해 ‘무지랭이’ 하위 주체들이 동학당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이들에게 주어진 머슴, 백정, 화전민, 판수의 자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주체화의 과정을 경험한다. 이는 당초 동학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 시천주(侍天主)사상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시천주란 진정한 자기가 된다는 것으로 이전의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가 됨을 의미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펼쳐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¹²⁾

엄밀하게 말해 김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동학당 재건’이라는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별당아씨와의 불륜) ‘파렴치한 최참판댁 머슴 구천’

10) 동학은 봉건적 국가사회의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 자기생생의 한계를 절감한 가운데서 태어났다. 정치사회의 억압적 지배질서라는 현실이 동학의 모태였다면, 이를 떠받치고 있던 지배계급의 이념을 극복하고자 했던 동학의 민중적 이념의 기반은 철저한 현세부정의 염원에서 비롯되었다.(임형진, 『동학사상과 민족통일운동의 방향』, 『동학학보』 36, 2015, 118-119쪽)

11) 랑시에르의 정치적 주체화는 ‘타자의 담론’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타자가 고정해 놓은 정체성 거부하기, 이 정체성을 변조하기, 어떤 자기와 단절하기 둘째, 타자에게 전달되는 증명이자 어떤 해(tort)로 정의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증명이다. 셋째, 그것은 언제나 불가능한 동일시와 동일시하기다.(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13, 190-203쪽 참조)

12) 이러한 새로운 자기의 획득이 이상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문동규, 앞의 논문, 91-98쪽 참조.

이라는 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죄부를 만들어주면서, ‘구국적 인물’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주는 장치가 된다. 김환은 동학을 전후로 이름의 명명이 달라진다.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뿌리를 알 수 없는 소문 속의 사내, 최참판댁의 머슴 구천에서 갑오년 동학장수의 피를 이어받은 김환으로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선다.

왜국에 대한 항쟁은 시작도 동학군이요 아직 의병의 총본산은 동학이니까 (6: 336)

김환과 가장 밀착된 인물은 김강쇠이다. 그는 지리산 화전민 출신의 솟 굽는 사내로서 다소 거칠지만 순박하고 의리있는 사내이다. 김환을 따라 다니면서 그의 행동과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감화되어 동학에 관계한다. 강쇠는 동학당이라기보다 오히려 “철두철미 김환의 신봉자”(18:97)이다. 강쇠는 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깨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의 말을 새겨들으려고 애쓴다. 김환의 사후 그에 대한 기억은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 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다시말해 김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지리산에 숨어살던 그가 지리산 모임에 나타나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고, 일제와 맞서는 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전환시켜 나간다.

동학이 자신의 위치성에 중요한 결정타가 되는 인물은 윤보와 송관수가 있다. 윤보의 경우, 다른 사람이 윤보를 인정하는 도구로 동학을 매개하고 있고, 송관수의 경우 스스로 동학을 자신의 구심점으로 삼는다. 떠돌이 곰보목수 윤보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윤보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사건은 소문으로 전해진 “동학에 참여하였다”는 이야기다.

윤보라는 그 사람이 곰보딱지 흥측스리 생겨서 아이들도 보든 달아난다 카고, 연장망태 짚어지고 짐이나 지어주는 목수라해서 사람들이 대

우를 안 해주지마는, 실상은 유식하기가 이를 데 없고 옛날 동학군에 있을 적에 저어기 저 백두산, 그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난 무슨 도사한테서 비법을 배웠다 카이, 예사 인물은 아니라더마요 (6: 208)

윤보는 마을에서 의협심이 강하고 심지가 굵은 사람으로 평사리 사람들의 구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떠돌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심지어 김훈장도 윤보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범상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윤보의 범상함은 동학과 관련하여 두드러진다. 이러한 윤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믿음은 절대적이며, 윤보를 앞장 세워 조준구에 맞서 최참판댁 창고를 여는 일을 성사시킨다.

한편, 송관수의 경우는 스스로 동학을 자신의 행동의 근거로 작동시키고 있다.

비록 식자는 없으나 윗마을의 관수도 똑똑했다. 친척을 믿고 어미와 함께 떠돌아와서 장착한 그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버지는 장돌뱅이였다고도 하고, 갓바치였다고도 하고 혹은 동학당으로서 어디서 죽었을 거라는 말도 있었다. 그래서 그랬던지 동학당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기를 쓰고 그들이 옳았음을 강조하였고 그 조그마한 눈에 열정이 타오르던 것이 인상적이었고 양반들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고 가혹했다. (4: 234)

송관수가 자신의 근본으로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동학당 아버지'에 있으며, 동학당에 대한 동의와 인정은 그러한 신분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이후 윤보를 따라 시작했던 의병활동이 실패해 도망 다니다 백정의 집에 피신하게 되고, 그의 딸과 혼인하면서 '백정 사위'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이후 김환, 혜관스님과의 만남은 그가 사람 축에 끼이지 못했던 '백정사위'라는 자괴감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관수에게 동학은 교리로서의 의미보다는 오직 단순하게 "세상을 바꾸어놔야 한다는 것", "배고프고 꺾박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맞물린다.

다시말해 평소 양반, 평민 할 것 없이 “다 같은 사람새끼”라는 지론을 가지고 동학이 내세우는 평등주의에 동조하면서 실천적 행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교리보다 싸움에 무게를 두는 김환과 만날 수 있다. 오히려 김환의 지식인적 면모에 불만을 표시하고 더 직접적인 행동실천을 주창해 왔다. 그래서 김환 사후 동학당이 해체된 이후에도 송관수는 형평사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의 시야는 더 넓어졌고 사회주의 활동가로서의 방향을 구체화해 나갔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궤적을 보면 “의병에서 동학잔당으로 형평사운동에서 사회주의 흐름 곁에 서게 된 것이다.”(18: 95)

이처럼 머슴, 곰보 목수, 화전민, 백정 등 가장 최하층계급에 속해 있었던 이들이 세상으로 나와 말하기 시작하는 데는 동학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화의 계기로 동학(운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소 비약적일 수 있지만, 바디우의 사건의 개념과 동학을 연결해 동학에 참여한 하위주체들의 급진성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바디우에 의하면 사건이란 기존의 상황이나 제도화된 지식과는 다른 것을 도래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방식을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이 ‘사건의 자리’이다. 사건의 중요성을 포착하여 그 사건을 상황의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개입(intervention)’을 통해 상황 속에서 그 사건에 충실한 주체가 탄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충실하는’ 한에서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사건은 이전 상황을 지배하던 법칙성의 체계에서 벗어나 사건이 만들어낸 진리를 추구하는 주체들을 탄생시킨다.¹³⁾

13) 알랭 바디우, 조형준 역, 『존재와 사건』, 새물결, 2013, 331-392쪽: 동학에 대한 작가의 사유도 이와 연결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이 정치사상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듯이, 동학은 우리의 근본을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이자 세계사적 사건이지요. 왜냐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확립하기 위한 농민들의 전쟁이자 사머니즘의 확인이었으니까요”(박경리, 『가설을 위한 망상』, 나남,

4. 동학의 장소, 지리산의 공간적 위상 변모

<토지>의 동학은 공간적으로 지리산과 인접해 있다.¹⁴⁾ 이때 지리산은 평사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저 거기에 있는 공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서사 공간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는 작품 속에 구현된 공간이 실제 세계의 공간과 얼마나 정합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새로운 공간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그 공간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¹⁵⁾ 동학과 관계에서 지리산의 공간적 위상을 재구성해 보면, 1부에서 지리산의 동학이 소문으로 유포될 때는 지리산은 평사리의 후면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김환이 만든 동학당은 지리산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김환에게 지리산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별당아씨와 함께 했던 공간이고 또 하나는 동학당을 만들었던 공간이다. 낭만적 사랑의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동학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있다. “진달래 피면 화전 만들어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라는 별당아씨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울리는 지리산은 구천이(김환)와 별당아씨에게만 소통되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이때 이곳은 언제나 별당아씨의 그림자가 겹쳐있는 황홀한 회환의 공간으로 등장한다. 김환과 별당아씨의 낭만적 사랑이 깃든 지리산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면서 현재는 부재한 상상의 공간이며, 산 아래 사람들과는 소통되지 않는 공간이다. 이때 지리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저기 있는’ 공간이 된다. 구천이와 별당아씨의 도피처나 동학군들이 숨었다던 소문의 공간으로 배치되었던 지리산이 산 아래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일

2007, 335쪽)

14) 문학적 사건 이전, 1860년 성립을 본 동학의 역사와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에 있어서 지리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지리산문화연구원 엮음, 『지리산권 동학농민혁명』, 선인, 2014 참조

15) 장일구. 『서사공간의 상징적 기획』, 『한국언어문학』 58, 2006, 56쪽.

이 없었던 거리를 둔 공간이었다면, 동학당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산 아래의 사건이 산 위로, 산 위의 은밀한 회담이 산 아래로 직접 전달되면서 그 경계가 해체되거나 뒤섞인다.

동학서사의 주요무대인 지리산은 지리학적으로 실존의 공간이다. 그렇다 해도 문학공간은 작가의 인식 방향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구성체이기 때문에, 그저 지리적 대상으로서의 공간에 머물기보다는 인간의 확장된 삶의 공간이며,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는 흔적으로써 과거의 체험을 현재화하는 동시대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작가는 동학장수 김개주-김환 동학당-이후의 동학잔당과 도솔암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모임까지 저항세력의 계보를 지리산을 중심으로 그려내고 있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여 동학은 탐관오리의 폭정에 대한 항거에서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정신적 방패막이로 그려지고, 이러한 저항의 코드를 역사적 시공간 안의 지리산 표상체계와 연결하여 서사화한 것은 자연스럽다.¹⁷⁾

주지하듯이 역사적 사건들을 근거로 한 저항의 공간성은 이미 지리산의 표상체계로 굳어있다. 지리산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성모신앙이나 신비스러운 기운을 안고 있는 유람의 성지 혹은 이상향의 은둔처였다.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이 흘러나왔다고 해서 두류산(頭流山), 옛 三神山의 하나인 방장산(方丈山), 조선 태조의 왕위 찬탈에 불복한 채 고려조에 대한 의리를 밝힌 지리산의 굳건함을 기리는 불복산(不服山)의 전설도 깔려 있다.¹⁸⁾ 절대 복종하지 말라며 처사를 자칭했던 유학자 남명의 학풍도 지리산과 무관하지 않고,¹⁹⁾ 일제말기 학도병을 거부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던 식민지 청년들이나, 현대사의 비극인 빨치산 저항운동으로

16) 한원균, 『문학과 공간: 그 이론적 모색』, 김수복 편저, 『한국문학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13쪽.

17) 이상진, 『자유와 생명의 공간, <토지>의 지리산』, 『현대소설연구』 37, 2008, 40쪽.

18) 곽재용, 『땅이름 '지리산' 고찰』, 『지명학』 17, 2011, 16-27쪽.

19) 박맹수, 『지리산권 동학농민혁명의 실상과 동아시아적 의미』, 『남도문화연구』 26집, 15쪽.

까지 이어졌던²⁰⁾ 장소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지리산은 저항의 공간이면서 새로운 이상향의 공간으로 재현되어 왔다.

<토지>의 지리산 역시 이와 같은 궤도를 형성한다. 작가는 지리산에 대한 기존의 표상체계에 민초들의 반역에 초점을 둔 동학을 더하여 들끓음으로써 저항의 파토스를 더욱 강하게 작동시키는 효과를 생산했다. 동학을 매개한 지리산의 저항의 성격은 다른 공간과 대비될 때 더욱 선명해진다. '동학도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산야(지리산)'와 반대로 '군자금을 현금'한 손병희, '왜적의 일등공신'이 된 이용구의 소식은 경성으로부터 전달되어 온다. 특히 2부의 서술방식을 보면, 지리산에서 동학이야기가 생산되고, 동학당이 만들어지고, 동학운동의 방향이나 활동들에 대해 충돌하고 협상하고 합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세밀하게 서술되는 동안, 이상현, 서의돈, 임명빈, 황태수, 유인성 등 소위 식민지 지식인들이 모여앉아 민속, 무속 등 세태 이야기가 오가는 장면이 병치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경성과 지리산은 도시/산촌이라는 물리적 경계에서 양반/민초, 친일/반일, 타협/항쟁 등의 의미들을 재생산하면서 위치를 전환시킨다.

반일이든 친일이든 조직이 표면화되어 있는 중앙의 동학과는 아무 관련없는, 동학란에 참가했고 숨어살고 있는 무리를 모았으며 우관의 제자이자 금어로서 김환이 어렸을 적에 돌보아주었던 혜관까지 끌어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의병 등을 엄폐물로 삼아 교묘하게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18: 94. 밑줄 필자)

이러한 서술방식에서 확인되는 것은 경성이라는 중심적인 공간과 그

20) 김준형, 『조선시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저항운동』, 『남명학연구』 31집, 2011, 300쪽;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靈山이라면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육신같은 존재가 아닐까? 우리의 살갓, 우리의 심장, 우리 민족의 혈혼이 점철된 곳, 지리산은 산 중에서도 겹겹이 쌓인 겹산이며 어느 산보다도 많은 생명을 포용했었다.(박경리, 『생명의 아픔』, 이룸, 2004, 202쪽)

공간의 지식인 표상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지리산이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리에 중점을 두고 포교활동을 해 나가는 경성의 손병희, 이용구나 남원의 청일교 등 지리산 밖의 동학은 ‘친일’, ‘축재’ 등과 연관하여 전달되고 있어, 지리산의 ‘순수한’ 반역의 피와는 거리가 있다. “의병의 성격을 띤 것도 아니요, 화적때도 아니”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화전민이요 숯 굽는 사람이요 사냥꾼일 뿐”(10: 208)인 지리산 사람들은 동학을 교리가 아닌 ‘현실적 강령’으로 삼아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항일투쟁은 동학당의 해체 이후에도 지리산에 모여든 의병, 학도병과 동학을 잇는 매개 요인이 되게 설정함으로써, 지리산을 실천의 영역으로 장소화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김환의 사후, 지리산 모임 해체와 결별의 수순을 밟기 위해 지리산에 모인 사람들은 길상, 강쇠, 해도사, 연학, 길노인의 아들 막동이다. 이 자리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 사이에 ‘도무지 공통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18: 93)는 것이다. 이들이 동학 잔당의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이 강산에 태어났다는 것, 피에 반역할 수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어진 일을 마다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해 온”(18: 97) 인생역정의 역사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김환의 사후(死後)에도 의병, 학도병까지 지리산으로 모여들면서 위반과 카니발의 공간성은 지속된다. 이러한 공간성은 물리적 경계의 지리산보다는 지리산과 동학당을 입접시키는 ‘반역의 피’라는 인식적 요인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동학당이 해체되고 지리산의 도술암이 주요한 서사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도사, 소지감 등의 인물이 초점화되면서 저항, 반역의 이미지보다 포괄, 생명이 강조된 지리산을 전경화한다. “동학은 그렇게 꺾이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네. 하늘님은 천상에 계신 것이 아니며 백성 하나하나, 사람뿐만 아니라 억조창생 생명있는 것, 그 생명이야말로 하늘님이기 때문”(19: 350)이라는 소지감의 발언은 동학의 핵심인 인내

천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학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지리산과 동학이 생명존중사상으로 연결되면서 그 인접성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이는 동학당의 활동이 왕성하던 시기에는 '싸움으로서의 동학'으로 저항의 이미지를 부각되었으나, 해체 이후에는 보다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생명사상과 인접하면서 포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²¹⁾

5. 구심과 원심의 이중주, 동학의 변이들

<토지>가 항일투쟁을 주요한 사건에 두고 있다면, 항일투쟁의 핵심적인 한 축에 동학이 있고, 동학의 구심점은 김개주-김환으로 이어진다. 부자관계인 이들은 사적으로는 불륜이라는 가부장적 질서의 위반, 공적으로는 조선왕조, 일제에 대한 '반역의 피'라는 유사한 플롯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이 구상하는 나라 세우기는 지배세력에 의해 오히려 '반역'에 위치되면서 또다른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구상하는 주체로 나아간다. 그런데 주체화 과정에서 김개주와 김환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김개주가 양반의 목숨을 '추풍낙엽'처럼 떨구며 철저히 배제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김환은 화적떼도, 백정도, 스님도, 식자층도 포함하는 연대의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21) 이상진은 <토지>에서 기존의 지리산이 가지는 장소 정체성인 저항적인 이미지를 통해 역사적인 맥락을 형성하고 있지만, 저항과 자유의 서사는 자비의 사상, 생명과 화해, 모성의 이미지를 드러내어 기존의 저항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지리산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다.(이상진, 앞의 논문, 296쪽); 이미화는 동학당의 유기체적 세계관과 모성적 지리산을 연결시켜 생명공동체로서의 동학당을 강조한다.(이미화, 『박경리 <토지>에 나타나는 생태학적 특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57, 2014, 332-337쪽 참조)

김개주는 영웅이다. 상민의 영웅이다. 조선 오백년을 들어 옹오려던 그를 사람들은 살인귀라 하였다. 압제자의 목을 추풍낙엽같이 날려버린 살인자, 살인귀건 흡혈귀건 아무래도 좋았다. 뿔이건 그는 꺾박받아온 백성들 가슴에 등불로 살아있다. 녹두장군 전봉준을 서울로 압송한 데 반하여 김개주는 위험인물이라 하여 체포 즉시 전주 감영에서 효수되었다. 위험시한 인물인 만큼 상민들 가슴에는 낙인처럼 뜨겁게 남아있는 풍운아 김개주, 그 반역의 피를 지금 눈앞에 있는 아들에게서 본다. 반역의 피는 모든 상민들의 피다. (8: 61)

위의 인용문은 공노인이 김개주를 기억하는 장면이다. 과거(김개주)가 현재를 어떻게 소환하고 있는가? 기억은, 결국 현재가 과거를 소환하는 형식이다. 그러니까 신화로 소환되는 동학장수 김개주는 현재의 부재와 동일성을 구축하려는 현재(공노인)의 서사적 욕망이다. 김개주는 공노인(상민)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영웅으로 남아 있다. ‘수성(獸性)과 신성(神性)을 반반씩 지닌 것 같은 신비로운’(2: 78) 김개주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그를 더욱 신격화한다.

반면, 환이는 인간적 고뇌를 온몸에 새기고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환이는 거의 말이 없는 사내였다. 눈으로 말하는 일도 드물었다. 대부분 그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의 몸 전체는 늘 하고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강쇠의 느낌이지만 소리도 눈물도 없이 통곡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축 늘어지던 그, 그러나 눈부시게 반전(反轉)하여 살갗의 땀구멍마다 바늘이 돋친 것처럼 매섭고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주변을 물고 갯었다. 천길 높이 외줄 위에서 차라리 떨어져 가루가 되기를 바라는 그 역설적 여유 때문에 지탱하였던 삶. (14: 151)

포교나 교리보다는 실천 강령으로서 동학에 기울게 한 점에서는 김개주와 김환의 연속성이 발견되나, 실천의 과정 혹은 주체화의 과정에서 ‘살인귀’ 김개주와는 차이를 보인다. ‘양재곤을 끌어내어 동학의 잔당을 모았을 때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모든 계책이 그에게서 나온 것도 사실

이고 암암리에 강한 발언권을 가졌음에도 그에게는 아무런 직명이 없었던'(10: 129) 점에서 김환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산의 동학당은 아버지 김개주와는 달리 이쪽과 저쪽을 포괄하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동학당의 수장 김환은 오히려 “동학이 아니어도 좋고, 경전에는 까막눈”(6: 385)임을 자처하며 현실적 강령으로 동학을 수용하고자 했다. 이후 김환은 “반일이든 친일이든 조직이 표면화되어 있는 중앙의 동학과는 아무 관련 없는”, 동학란에 참가했고, 곳곳에 숨어살고 있는 무리를 모았으며 우관스님의 제자인 혜관까지 끌어들었다. 이러한 면면들을 볼 때, 김환의 동학당은 상명하복의 조직적인 계통이나 형식 교리를 중시 여기는 집단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싸움’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전의 동학이 갖고 있던 종교적 색채를 탈각하고 현실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을²²⁾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왕년의 동학란도 국정이 피폐하고 오백년 왕조가 쇠해 가는 데서 솟은 힘이 아니겠소? 외세만 아니었다면 동학은 어찌면 혁명을 성취했을 지도 모르겠고, 천재일우의 기회를 일본에게 가로채인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기에 왕년의 그 잃었던 기회에 대하여 연연하는 것은 큰 잘못으로 나는 알고 있소. (...) 항일투쟁은 결코 동학의 독점물도 아닐 것이요. (9: 328-329)

김환은 갑오년과 지금의 사정이 달라졌으므로 과거의 동학란에 더 이상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이어 동학당의 재건이 김개주에서 출발되었으나 국운이 다한 왕조시대와 육일승천하는 식민지제국이 라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과거의 원형에 기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설파한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하는데, 그 방향성은 산 위/아래의 공간적 경계를 넘나들고, 다양한 인물군상들의 네트워크에 힘을 쏟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동일성의 공간을 확보

22) 박상민, 앞의 논문, 2009, 109쪽.

하고자 했던 아버지 김개주의 시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경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미다.

그래서 김환의 동학당은 지리산에만 머물지 않는다. 동학당의 구성원들은 지리산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리산은 산 위/아래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구심점이자 매개고리가 된다. 일차적으로 갑오년 동학전쟁을 경험한 윤봉노인, 혜관스님, 윤도집, 윤도집의 큰 아들 필구, 진주의 송관수, 객줏집 주인 석포, 화전민 강쇠, 조막손 손가 등은 산 위/아래 각처의 인물들과 연결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지리산의 동학당은 일차적으로 구심력의 원리에 의해 조직화되지만 이것을 발판으로 지리산에서 그 둘레로, 더 먼 곳으로 확대되어 간다. 다시 말해 원심적인 분사의 원리에 의해 저항의 공간성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주, 서울, 만주 등으로 분사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지리산 위/아래가 단절되지도 않고,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성은 동학 이후 형평사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과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했다.

혜관은 도관 비슷한 것을 들여다본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검은 점 여남은 개가 찍혀 있다. 그러니까 검은 점은 지리산에 가장 가까운 둘레의 요지들이고 그 요지들 둘레에는 스무남은 개 정도, 검은 점에다 동그라미 한 개를 친 것이 그려져 있다. 그밖에는 동그라미가 두 개, 또 그 밖에는 동그라미가 세 개, 다음은 아주 먼 곳으로 뛰어서 화살표로 표시된 그냥 동그라미가 여러 개 된다. (7: 38)

김환 사후, 동학당은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그 성격이 김환의 세대와 달라진다. 그러나 길상에게, 다시 사회주의자 이범호에게 이어지며 이 장소의 저항적 상상력은 여전히 지속된다. 동학잔당에서 형평사운동으로 다시 사회주의 운동의 행보를 보여주는 송관수의 행적은 동학의 외

연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시공간적으로 포괄의 원리가 작동되면서 구성원이나 실천에서 동학에 연원을 둔 다양한 변이들이 확산되고, 동학의 외연은 더욱 넓어진다.

길상과 강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동학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열렬한 독립투사도 우국지사도 아니었다. 해도사와 지감은 복잡한 여정을 거쳐 왔지만 연학과 막동은 평범하고 자신들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온 그냥 백성이었다. 다만 그들은 이 강산에 태어났다는 것, 피에 반역할 수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어진 일을 마다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해 온 사람들이다. (18: 97)

동학당 해체 이후 해도사 산막에 모여든 사람들, 즉, 김강쇠, 소지감, 해도사, 임명빈, 장연학, 김휘, 이범호, 몽치 등의 만남은 동학의 외연을 더욱 확장해 준다. 여전히 동학의 잔당임을 자처하는 사람, 세상을 등지고 지리산으로 들어온 사람, 후진양성을 준비하는 사람, 학병이나 징용을 피해 숨어든 청년 등등 제각각의 이유로 산에 들어왔지만, '항일'이나,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동일한 반역의 지점은 공통의 묶이었다. "진보적 사회주의자였던 이범준, 그가 진주 형평사 운동에 가담하면서 동지가 된 송관수, 그 인연으로 하여 알게 된 소지감. 이들은 살아온 역정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생리적으로 친구가 될 수 없었으며 더구나 동지도 될 수 없었던 사이"(17: 177)였지만, 한 자리에 모여 수평적 연대의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지리산 모임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동질적이기 보다 이질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동질성에 기반한 연대는 특수한 집단의 제한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출발하게 된 것이므로, 또다시 배타적이고 폐쇄적 공간으로 환원될 여지가 높다. 그러므로 특수하고 제한된 속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특수성에 고착된 연대는 전체주의적 연대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과 논변적인

의사형성을 통해 교정되어야 한다.²³⁾ 동학이라는 동질성에서 출발한 지리산 동학당은 공간적·인적으로 새로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그 공간적 속성이 변해간다. 김환 사후의 지리산 모임은 오히려 ‘적대를 통한 연대’²⁴⁾를 지향하면서 낯설고 이질적이고 배제된 것들을 발굴하여 이를 연대적 감수성 속으로 포괄하는 셈이다. 특히 “산사람들과 의병봉기에 합류했던 사람들, 만주로 도피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깊고 얽힌 간에 김환을 정점으로 흘러 내려온 사람들이며 동학혁명 세력에서 대일항쟁으로 돌아선 민족주의, 말하자면 조선의 토종...”(19: 340)이다. 현재의 대일항쟁,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저항세력에 여전히 동학의 목소리를 유효하게 개입시키는 것은 <토지>의 전반에 바탕하고 있는 동학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동학의 공간성을 더욱 확장된다.

6. 나가면서

소설 <토지>는 최씨 3대와 그 주변 민중들의 서사가 중첩되어 있다. 무수한 인물들이 교차하면서 만들어 내는 사건들의 중심축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동학서사다. 소설 안에서 동학은 종교나 사상보다는 ‘반역의 피’를 강조하는 ‘민중들의 싸움’으로서의 동학에 집중했다. 이 싸움은 탐관오리 타파에서부터 항일투쟁, 사회주의 혁명에까지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동학이 단순한 배경이 아닌 <토지>의 서사를 추동시켜 나가는 주요한 서사적 사건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작품 안에서 어떻게 배치되었으며, 그 배치의 전략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토지>의 동학에 대한 재현은 세대에 따라 다른데, 동학의 출

23) 위르겐 하버마스, 황태연 역, 『이질성의 포용』, 나남, 2000, 175쪽.

24) 서영표, 『저항적 연대와 사회변혁』, 『로컬리티 인문학』 14, 2015, 137쪽.

발점인 갑오년 동학은 소문으로, 재건한 지리산 동학은 토론과 싸움의 현장으로, 김환 사후 동학당은 해체의 과정을 후일담의 형식이라는 서술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둘째, 머슴, 곰보 목수, 화전민, 백정 등 가장 최하층계급에 속해 있었던 이들이 세상으로 나와 말하기 시작하는 데는 동학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화의 계기로 동학(운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토지>의 서사를 추동시키는 사건들과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리산의 동학당과 매개되면서 지리산의 공간성이 변모된다. 특히 김환의 동학당은 지리산을 사적공간에서 공적공간으로 작품 전면에 등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더욱이 기존의 지리산에 표상된 저항의 이미지에 '반역의 피'들이 모여들으로써 저항과 위반의 이미지는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저항과 위반은 동학당 해체 이후 근원적인 생명사상을 포괄한다.

넷째, 동학의 '싸움' 전략이 김개주-김환의 세대를 지나면서 구심력에서 원심적 원리로 변모됨을 알 수 있다. 영웅적 장수에 의한 수직적 공간에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저항적 주체화의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원심력이 동학의 공간을 지배한다. 이의 기반에는 '이 땅의 변혁'을 열망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공통성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의 주체의식이자 작가의식과 연결된다. 이때 원심적 원리는 토지가 자칫 최참관 家로 수렴되는 구심력을 해체하고, 서사의 무대를 확장시킨다.

넷째, '싸움'의 동학이 진행되는 방식에서 공간적 원리가 변모된다. 김환의 동학당이 토론의 현장에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학당 전/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구심/원심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학서사의 중심 플롯이 되는 김환의 동학당은 지금-여기의 현재성을 확보하면서 지리산을 거점으로 한 민초들의 실천적 강령을 앞세웠다. 갑

오년의 농민전쟁이 미완으로 그쳤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의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건달패, 대장장이, 장사꾼, 객줏집, 판수, 백정, 화전민’ 등 비가시적이었던 ‘하찮은’ 목숨들이 가시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사건의 주체로 재탄생할 수 있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당대 가장 예외적인 인물, 백정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송관수나 화전민 강쇠가 그들을 움매고 있었던 신분적 질서에서 벗어나, 다른 시공간으로 옮겨가는 실천적 행보에 동학이 매개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작품 안에서 ‘이 땅의 변혁’을 열망하는 이들을 관통하는 근본은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공통된 기반에 있다.²⁵⁾

25) 작품 밖의 작가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프랑스 혁명이 장치사상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는데, 동학은 우리의 근본을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이자 세계사적 사건이지요. 왜냐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확립하기 위한 농민들의 전쟁이자 샤머니즘의 확인이었으니까요”(박경리, 『가설을 위한 망상』, 나남, 2007, 335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 박경리, <토지>1-21, 나남, 2005(14쇄)
박경리, 『가설을 위한 망상』, 나남, 2007
박경리, 『생명의 아픔』, 이룸, 2004

2. 논저

- 곽재용, 「땅이름 '지리산' 고찰」, 『지명학』 17, 한국지명학회, 2011, 16-27쪽.
권인호, 「동학사상과 갑오농민전쟁의 근대적 자주성」, 『한국민족문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60쪽.
김수복 편저, 『한국문학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13쪽.
김준형, 「조선시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저항운동」, 『남명학연구』 31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1, 300쪽.
문동규, 「지리산권 동학농민혁명과 동학의 '시천주」, 동학학보 32, 동학학회, 2014, 83-84쪽, 91-98쪽.
문재원, 「<토지>에 나타난 소문의 구성과 배치」, 『현대소설연구』 32, 현대소설학회, 2007, 283-310쪽.
박맹수, 「지리산권 동학농민혁명의 실상과 동아시아적 의미」, 『남도문화연구』 26집,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4, 15쪽.
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동학: 소멸하지 않는 민족 에너지의 복원」, 『문학과종교』 14-1,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9, 109쪽.
박상민, 「박경리 토지 연구의 통시적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3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5, 271-319쪽.
서영표, 「저항적 연대와 사회변혁」, 『로컬리티 인문학』 14, 부산대 한국

- 민족문화연구소, 2015, 137쪽.
- 신용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56-76쪽.
- 우수영, 「박경리 <토지>를 통해 고찰한 ‘동학’의 의미」, 『동학학보』 26, 동학학회, 2012, 343-375쪽.
- 이미화, 「박경리 <토지>에 나타나는 생태학적 특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57, 현대소설학회, 2014, 332-337쪽.
- 이상진, 「자유와 생명의 공간, <토지>의 지리산」, 『현대소설연구』 37, 2008, 현대소설학회, 40쪽, 296쪽.
- 이현아, 「우리는 토론을 통해 이성적 상호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한국정치학보』 41(4), 한국정치학회, 2007, 83쪽.
- 임형진, 「동학사상과 민족통일운동의 방향」, 『동학학보』 36, 2015, 동학학회, 118-119쪽.
- 장일구, 「서사공간의 상징적 기획」, 『한국언어문학』 58, 2006, 한국언어학회, 56쪽.
- 지리산문화연구원 엮음, 『지리산권 동학농민혁명』, 선인, 2014.
- 한승옥,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동학의 의미」, 『승실어문』 15, 승실어문학회, 1999, 321-330쪽.
- 한원균, 「문학과 공간: 그 이론적 모색」, 김수복 편저, 『한국문학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13쪽.
- 한점돌, 「박경리 <토지>의 문학사상 연구-<토지>와 동학사상의 관련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373-400쪽.
- 알랭 바디우, 조형준 역, 『존재와 사건』, 새물결, 2013, 331-392쪽.
- 위르겐 하버마스, 황태연 역, 『이질성의 포용』, 나남, 2000, 175쪽.
-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13, 190-203쪽.
- 필립 아레에스·조르쥬 뒤비 편집, 주명철·전수연 역, 『사생활의 역사』,

새물결, 2002.

한스 J. 노이바우어, 박동자 황승환 역, 『소문의 역사』, 세종서적, 2001,
219-221쪽.

<Abstract>

A Study of Aspects about Narrative of Donghak Represented in *Toji*

Mun, Jae-Won

Taking note th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s weaved into *Toji* as an important event that drives the narrative of the novel, this paper examines how Donghak is arranged in the novel and what strategies and effects are involved in such arrangement. The author conveys Donghak through an indirect utterance of a rumor and a direct utterance of an on-the-scene discussion. In addition, the author sets up Jirisan mountain as the main background of Donghak and concurrently expands the narrative stage by promoting a communica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mountain. The narrative of Donghak is arranged as a narrative of resistance connected to anti-Japanese struggle starting from the Gobu Uprising, which is introduced in the first part of the novel. As the words by Unbong from Donghakdang emphasizes that “the blood of treason is the truth and hope of the oppressed subalterns,” the power of the people was at the very bottom of this revolt. Therefore, Kim Hwan’s Donghakdang, which serves as the central axis of the narrative of *Toji*, is closely connected to a new placemaking. Here, Donghak can be viewed as a praxis that reveals the resentment and longing of the innumerable nameless, speechless, and voiceless people, and enables them speak for themselves. This process certainly demands a sensory order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rder for character subjectification. Moreover, this narrative of resistance requires a different way of reading besides the existing readings that converge on the three generations of the Choi family.

Key Words : Donghak Peasant Revolution, rumor, discussion, Subjectivation, Jirisan Mountain, narrative of resistance, centripetal force and centrifugal force.

■ 논문접수 : 2016년 7월 5일

■ 심사완료 : 2016년 7월 27일

■ 게재확정 : 2016년 8월 16일

